

보도시점 2026. 8. 20.(목) 12:00 배포 2026. 8. 20.(목) 09:00

2026년 2/4분기 대외채권·채무 동향

- 대외채무 규모(8,128억불)는 전분기말 대비 +384억불 증가,
대외채권 규모(1조 1,806억불)는 +407억불 증가 -
- 순대외채권은 소폭 증가했고, 외채 건전성 지표는 양호 -

2026년 2분기말 대외채무는 8,128억불로 전분기말(7,744억불) 대비 +384억불 증가하였다.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985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+150억불 증가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6,143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+235억불 증가하였다. 단기외채 증가는 차입 확대보다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·경과성 채무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. 부문별로는 정부(+84억불), 기타부문(비은행권·공공·민간기업, +363억불)의 외채가 증가한 반면, 중앙은행(△15억불), 은행(△48억불)의 외채는 감소하였다.

한편, 2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1,806억불을 기록하였으며, 전분기말(1조 1,399억불) 대비 +407억불 증가하였다.

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,678억불로 전분기말(3,655억불) 대비 +23억불 증가하였다. 대외채권 증가폭이 대외채무 증가폭을 소폭 상회하면서 순대외채권은 3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였다.

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'26년 1분기말 23.7% → '26년 2분기말 24.4%),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('26년 1분기말 43.3% → '26년 2분기말 46.5%) 등 건전성 지표는 전분기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. 대외채무 중 장기외채 증가폭이 더 컸으나 단기외채도 증가하면서 관련 비중·비율이 상승하였다.

그럼에도 순대외채권이 소폭 증가하고 외환보유액도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대외 지급여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* 단기 순대외채권(억불): ('08.Q3) 1,270 → ('26.Q2) 4,884억불

한편,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LCR, Liquidity Coverage Ratio)도 2026년 2분기말 기준 167.0%로 규제비율인 80%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.

정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,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등 국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외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.

※ 직접투자 중 지분, 증권투자 중 주식, 파생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대외금융 자산·부채 동향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「2026년 2/4분기 국제투자대조표 (잠정)」(8.20일)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	김희재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창선 (dje9350@korea.kr)



참 고

대외채무 현황 : 기말기준

구분	2023	2024	2025				2026		전기비 증감
			1/4	2/4	3/4	4/4	1/4	2/4	
총 외채(억불)	6,773	6,778	6,879	7,396	7,418	7,702	7,744	8,128	+384
단기외채(억불)	1,415	1,468	1,498	1,680	1,628	1,794	1,836	1,985	+150
장기외채(억불)	5,359	5,310	5,381	5,716	5,790	5,908	5,908	6,143	+235
단기외채/총외채(%)	20.9	21.7	21.8	22.7	21.9	23.3	23.7	24.4	+0.7%p
단기외채/보유액(%)	33.7	35.3	36.6	40.9	38.6	41.9	43.3	46.5	+3.1%p
대외채권(억불)	10,350	10,712	10,570	10,996	11,278	11,432	11,399	11,806	+407
순대외채권(억불)	3,577	3,934	3,691	3,600	3,861	3,731	3,655	3,678	+23

※ 통계 출처: 2026년 2/4분기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6.8.20.)